

불교방송 광고 SBS 미디어랩이 맡아 종교방송協 “공영 변경 주장”

불교방송의 광고를 앞으로는 SBS 미디어랩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담당한 일부 중소·지방 방송 광고와 OBS 광고 일부는 SBS 미디어랩(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미디어크리에이티브가 판매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요시(안)를 확정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8월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코바코는 EBS, CBS, 평화방송, 극동방송, YTN라디오, TBS-eFM, 부산영아방송, 광주영아방송의 광고 판매를 담당하며 SBS 미디어크리에이티브는 불교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의 광고를 맡는다.

불교방송, CBS, 평화방송, 원음방송이 참여하는 종교방송협의 회도 심의를 내고 “종교방송은 60% 이상 교포나 선교 방송을 할 의무가 있는 공영적 성격의 매체”라며 “종교방송 설립 취지를 감안해 종교방송사들을 공영 미디어랩에 연계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국일보, 查察 기사 조계사에 사과

불법사찰관련 해설 기사로 불의를 빚은 <주간한국>의 모회사 <한국일보>가 조계사와의 갈등에 대해 불교계에 사죄했다.

조계사 호법위원회(위원장 성진, 이하 조계사 호법위)는 7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8시 한국일보 사장이 주지 도문 스님을 만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사죄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호법위원장 성진 스님은 “한국일보와의 갈등 관계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 항의방문 등 대응은 점점 유보한다”면서 “향후에도 전개 방향을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능동성’ 유도, 천일 정진 성공요건

‘생명평화 1000일 정진’ 100일 의미와 과제

조계종 자성교과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가 추진하는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이 7월 5일로 100일을 맞았다. 지난 3월 28일 시작한 정진은 100일, 2400시간을 거치며 1487명의 기도객들을 불러 모았다.

1000일 정진은 민족화해, 평화통일,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등을 발원하며 시작된 종단 차원의 결사다. 이념, 남북, 지역 문제 등 한국사회 전반의 갈등을 불교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풀어내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5일 열린 참가자 간담회에서 “이번 1000일 정진은 출세가의 벽을 허물고 불교와 일반 사회가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있다”며 “한국사회의 공통적인 현안 해결을 발원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불교계가 나선 것”이라고 정진의 의미를 밝혔다.

호응 높이지 않자 취지 이해 부족

도심 한가운데에서 설치된 정진단에서 차분히 기도를 하는 1000일 정진에 대한 참가자들의 호응은 매우 높다. 조계사, 봉은사, 불광사 신도들의 조직적 참여는 물론, 매일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개인적 정진을 이어가는 불자도 있다.

매일 새벽정진을 하는 윤용희 씨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려고 했던 것이 매일로 바뀌었다. 내



봉은사 신도들이 생명평화 정진단에서 정진을 하고있다.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487명 정진단에 동참

한국사회·불교현안 해결 발원 대부분 ‘先불만 後호응’ 소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 좋다. 직장을 다녀 힘들지만 끝까지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회원 유신화 씨는 “큰 법당에 가면 내 자리가 어디인지 찾기가 어렵지만, 정진단에 들어서면 이곳이 ‘내 자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매일 1시간이라도 착하게 살고 싶어 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호응은 높은 편이지만 정진의 취지를 바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불자는 의외로 적은 편이다. 특히 사찰에서 조직적으로 참가한 신도일수록 더욱 그랬다. “물랐는데 와서 정진하니 참 좋았다”라는 의견이다.

이경자 봉은사 사무총장은 “처음 시작할 때는 1000일 정진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종단 차원의 정진이기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막상 정진단에 와서 기도를 해보니 이만한 기도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가 너무 잘 된다”고 말했다.

문수회 불광사 신도회 사무국장 역시 “자성과 쇄신은 스님들이 할 일이지, 잘하고 있는 우리가 왜 하나”라는 생각으로 처음 왔었다. 하지만 참가해보니 도반들이 다시 와서 기도해보고 싶다고 한다”고 밝혔다.

‘일상의 집’ 된 형국, 타개책은?

이제 정진은 900여일 남았다. 앞으로 2만여 시간과 10년의 계절을 넘겨야 한다. ‘민족화해, 평화통일,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 1000일 정진 결사’의 원만 회합을 위해 이제 필요한 것은 종단, 사찰, 사부대중의 ‘능동성’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왕조실록 본래 자리로 와야”

문화재청 고궁박물관 이관 결정... 강원지역 불교계 반발

서울대 규장각이 관리해왔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의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이관에 대해 오대산사고본의 본 소장처였던 평창 월정사와 지역민사회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7월 3일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관리해왔던 국보 제151-3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74책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해 관리하기로 결정했

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월정사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례 제자리 찾기 범도민주진위회(위원장 원영환)는 4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서울대 규장각에 임시 보관돼오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의 이전은 환영지만 보관처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아닌 제자리인 오대산이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범도민주진위회는 성명에서 “조선 시대에는 분산 보관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오대산, 태백산, 정족산, 마니산 등에 나누어 보관했다”며 “서울대 규장각에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기는 것은 분산 보관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반 국립고궁박물관의 실록 관리 지정은 조선시대 사고(史庫) 제도 운영취지에 따라 분산 보관한다는 방침 하에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20대 청년 위한 출가학교 문 열다

조계종 교육원, 해남 미항사서... 1일 입재식



조계종 청년 출가학교에 참석한 청년들이 기본적인 사찰예절습의를 배우고 있다.

20대 청년들에게 ‘출가’라는 대안적 삶을 바로 알리기 위한 출가학교가 문을 열었다. 조계종교육원(원장 현웅)은 종단 첫 청년출가학교(학교장 법인)를 해남 미항사에서 열고 7월 1일 입재식을 봉행했다.

남행자 19명, 여행자 22명 등 총 41명이 참석한 이번 청년 출가학교는 한달여의 모집 기간동안 20대 청년 272명이 지원해 높은 열기를 보였다. <차주 상보>

청년출가학교장 법인 스님은 “홍보 기간이 짧아서 지원하는 청년들이 아주 많아도 100여명 정도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원했다. 이들 청년들 모두를 선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고 어려움을 많았다”며 “종단은 이들

이 왜 이렇게 출가학교를 지원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출가학교는 9일까지 8박 9일 동안 진행됐으며, 용타스님(행복마을 이사장), 도법스님(실상사 회주), 해민스님(미국 뉴햄프셔대 교수), 조성택교수(고려대), 고미숙씨(고전평론가) 등이 교수사로 참여하며 법인스님(교육부장), 금강스님(미항사 주지), 원영스님(조계종 교수사사리) 등이 지도법사로 나서 청년들을 이끌었다.

청년 출가학교는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에게 불교가 새로운 사상과 삶의 대안임을 제시하고, 출가수행의 길을 바르게 안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됐다. 신종일 기자

종교인 노후복지 과제로 해결해야

김상구 사무처장 ‘사찰재정 투명화...’ 강요

“종교인 과세를 위해서는 노후 제도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신고만 하면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7월 8일, 재가연대가 주최하는 리더스포럼에서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사찰 재정 투명화와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 사무처장은 조계종 승려 노후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김 사무처장은 종교인 과세가 면세점 이하의 미지급 종교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소득신고를 통해 >직장의료보험 전환으로 의료보험수가 하향조정 >기초생활 보장 자격 등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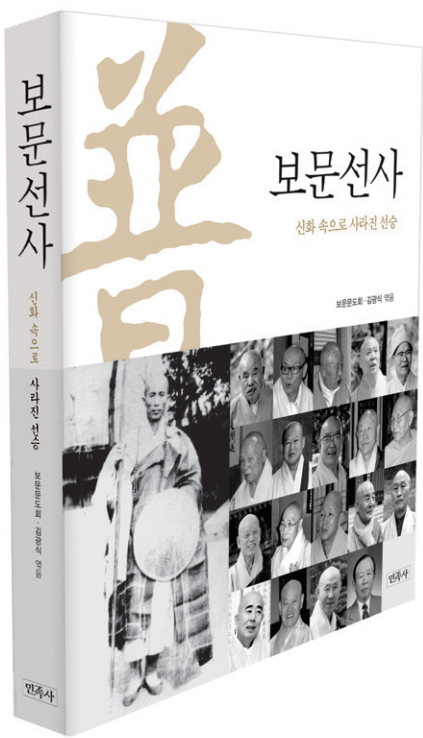
조계종 승려 복지제도 취약 4대보험 복지 혜택 과제로

김 사무처장은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과 동시에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대해 종교인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보문스님이 오래 사셨다면 종정도 하셨고, 한국불교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초우륵스님)

갈빗대를 잘라내는 대수술에도 화두만을 붙들었던 스님, 보문스님의 전설이 밝혀진다



진정한 간화선승!
성철스님과 봉암사결사를 이끈 주인공!!
선방의 수좌 스님들 사이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큰스님, 보문선사

“성철스님은 큰스님이기는 해도 아직 전지가 뜯겨진 사람이 아니며, 내가 보기엔 보문스님이 진짜 선승이지. 그런 스님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스님은 말을 하지 않고 술선수범하는 스님이에요.”
성수큰스님(전 해인사 주지, 전 조계종 총무원장)

보문선사

신화 속으로 사라진 선승

보문문화회·김광식 엮음 | 376쪽 | 정가 28,000원 | 양장(175×225mm)

민중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빌딩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s@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6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www.minjoksa.org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인간 경허, 시인 경허, 선승 경허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선함과 악함이 부처와 호랑이보다 더하신 분 바로 경허선사이다
돌아가셨으니 어느 곳을 향해 떠나셨는가
술에 취하여 꽃밭 속에 누우셨도다 -만공월면

善惡過虎佛 是鏡虛禪師
遷化向甚麼處去 酒醉花面臥



경허

술에 취해 꽃밭에 누운 선승

글·임지 | 352쪽 | 13,000원
소프트양장(150×208mm)

민중사